

인후두역류질환의 진단방법으로서 Water-Siphon Test의 유용성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정성민·김현경*·김한수

목 적 :

위식도역류질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며 이 중 24시간 보행성식도 pH검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. 하지만 침습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제한점에 비해 민감도는 75~80% 정도로 실제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Water-Siphon test의 결과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인후두역류질환자들의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과 비교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 법 :

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인후두역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182명의 환자 중 Water-Siphon test와 설문조사를 시행한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Reflux Symptom Index(RSI), Reflux Finding Score(RFS)를 산출하였다. 또한 Water-Siphon test 결과를 역류정도, 역류횟수, 저류시간으로 분류하여 RSI, RFS 및 각 증상과 신체검사 소견 개별항목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. 역류정도는 0) 역류없음, 1) 위식도문합부위부

터 5 cm 미만일 때, 2) 대동맥궁, 3) 흉곽입구, 4) 3)보다 위 쪽으로의 역류되었을 때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였고, 저류 시간은 0) 저류없음, 1) 1~9초 동안의 저류, 2) 10초 이상의 저류일 때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.

결 과 :

87명의 환자중 Water-Siphon test에서 역류소견이 보인 환자는 79명(80%)였다. RSI의 평균은 13.44 ± 8.18 , RFS는 8.80 ± 3.28 이었다. Water-Siphon test결과 역류의 정도는 RFS항목 중 가성대구 소견, 후두내 점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류의 횟수는 RSI 항목 중 기침 등의 세 항목 및 RFS 중 후두내 점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저류시간은 RFS중 후두의 발적 소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.

결 론 :

Water-Siphon test는 비침습적이고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는 검사로 인후두역류질환의 새로운 진단 검사 기준의 설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